

사·부·대·중

재적 사찰을 갖자

조계종에서는 신도 등록을 받고 있다. 1인 1사찰 갖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우리 불자들은 부표마냥 떠돌아다닌다. 집착을 버리라는 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어디에 얽매는 것이 싫어서인지... 내가



혜관스님 계간(불교문예)발행인

무엇이 기분 나쁘는지 다른 점로 가버렸다.

진정으로 정진하는 불자라면 가까운 절을 원찰로 정하고 꾸준한 기도 속에 수행과 포교 불사를, 말하자면 사부대중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웃 종단은 몇 백만 명을 신도등록하여 조직화했다 하며, 또 다른 교단들은 대부분의 신도를 교육시켜 일상불란한 신도회를 갖추었다고 자랑한다. 현대는 조직사회이다. 이제 나 홀로, 나만을 위한 기도나 하며 믿는 불교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믿음을 갖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 최근 불교참여연대에서 불교아카데미를 창설하여 인재양성에 나선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21세기 불교를 이끌어갈 많은 인재가 나와, 수동적인 타력신앙의 굴레를 깨고 능동적인 자력수행의 문을 활짝 열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불교는 치마불교, 기복불교, 무질서불교란 비판적 시선을 받아왔다. 이제 불자들이 현대사회에 적응하려면 사부대중 공동체 안에서 체계적 교육을 받고 '신해행증'으로 나아가, 종단과 사회를 위한 보살행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불교 명절이면 어떤 신도들은 3군데 이상 사찰을 다니는 그 차례에 만족하는 것 같다. 또 어느 신도는 같은 지역에서 오는 신도들과 함께 동행하며 다니라고 했더니,

떠돌이 신도 노릇은 이제 그만하자. 가까운 사찰에 신도등록을 하고 애정을 지닌 참불자로서 자랑스럽게 수행을 해야 한다.

이웃 종단은 몇 백만 명을 신도등록하여 조직화했다 하며, 또 다른 교단들은 대부분의 신도를 교육시켜 일상불란한 신도회를 갖추었다고 자랑한다. 현대는 조직사회이다. 이제 나 홀로, 나만을 위한 기도나 하며 믿는 불교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믿음을 갖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 최근 불교참여연대에서 불교아카데미를 창설하여 인재양성에 나선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21세기 불교를 이끌어갈 많은 인재가 나와, 수동적인 타력신앙의 굴레를 깨고 능동적인 자력수행의 문을 활짝 열기를 기대한다.

'보시문화' 정착 되려면...

수입 중 1% '나눔의 실천'에 쓰자

창립 10주년을 맞은 '우리는 선우'가 최근 '사회를 맑고 따뜻하게'를 모토로 매월 시간과 재물 3%를 보시해 사회에 환원하자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 재가연대도 '1% 회향운동'을 벌이는 등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보시' 문화가 싹트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 전반적으로 볼 때 '보시 문화'는 열악한 수준이다. '보시'는 있지만 이것이 '문화'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나눔'이 생활화되지 못하고 있고, 제도 또한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 '보시문화'의 현주소는 어디고, 무엇이 문제이며, '보시행'을 일상속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점검해 본다.

● 불교 '보시문화'의 현주소  
복지시설이나 불교시민운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보시'가 이뤄지고 있지만 불자의 몇 %가, 어느 정도를 '보시' 하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다. 불교계의 '보시 문화'가 얼마나 활발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복지시설이나 불교시민운동단체 등의 보시금 현황을



◇시간의 3%, 재물의 3%를 이웃과 사회를 위해 쓰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는 선우'. 회원들 대부분은 매월 3%를 넘어 5%를 보시하고 있다. 사진은 '우리는 선우' 회원들이 법회를 마친 후 '재물 3% 보시'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지재단이 지난해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ARS 전화모금은 월 평균 동참자 40여명 안팎에 모금되는 보시금도 5만~10만원에 불과하다.

● 무엇이 문제인가  
경기도 C사찰의 주지스님은 5개월 전부터 신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인근 고아원을 방문해오다 최근 그만두었다. 시간이 갈수록 신도들이 참여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어떤 신도로부터는 '티도 안 나는 일인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도나 열심히 하는 게 낫다'는 말까지 들었다.

보시하는 불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불자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나눔'의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보시하는 불자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정기적이고, 연말연시 등 '반짝 보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시'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선택사항'쯤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 폭 집에 보시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의식도 문제다. 복지시설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불자들은 이상하게도 절에 보시하는 것은 복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복지시설에 보시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스님들이 앞장서 이런 인식을 바꾸고, 불자들이 스스로도 생각을 바꾸어야만 보시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도 문제다. 최근 들어 각 복지시설들이 갖가지 후원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자들을 끌어들이기에는 미

우리는 선우 회원들  
시간-재물의 3%  
유산의 10% '이웃 위해'

약한 실정이다. 또 보시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것도 한 이유다. 보시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각 사찰과 단체들의 안이함에 불자들의 호응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

이데, 어떻게 보시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즉, 보시에 대한 접근통로가 개발돼 있지 않아 자발적 참여의지를 가진 사람마저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인식전환-프로그램 개발해야  
대부분의 교계 관계자들은 보시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스님과 불자들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가연대 이영철 사무처장은 "나눔의 실천이야말로 말로 진정된 의미의 복을 짓는 행위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돈만 보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능력과 시간을 이웃과 나누는 것도 보시행이라는 것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참을 이끌어 내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수적이다. 먼저 사찰의 경우 수입금의 1%만이

라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각 단체들과 불자들이 역시 수입의 1%를 정기적으로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선우'는 얼마 전부터 '시간의 3%, 재물의 3%, 유산의 10%'를 이웃과 사회를 위해 쓰자는 결사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회원들이 매월 5% 이상의 보시를 생활화하고 있고, 회원의 5분의 1 정도가 유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약속했다.

아직 방향은 적지만 재가연대도 정기소득과 유산의 1% 보시, 주간·월간 단위 시간의 1% 봉사활동 참여, 1% 나눔을 위해 기도하기 등의 '나눔을 삶'을 위한 4대 방편'을 제시하고 불자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기금 모금도 한 방법이다. 조계종 복지재단 이호철 과장은 "자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와 관련해 정기적인 이벤트 행사를 갖는다면 젊은 층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기금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수적이다. 장학금 등 보시자가 지정하는 '맞춤식 기금'이나 '아이디어' 기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시간 나눔' 등의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 최근 전북지역 불교단체가 시작해 타종교인의 동참까지 이끌어낸, 1천명이 천원씩 내는 '천천클럽'과 같은 단체를 지역별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재 일부 복지시설들이 실시하고 있는 지역민과 불우이웃간의 1대1 결연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명우 기자

'시주만 복 짓는다' 오해

복지시설 후원 감소세

시민단체는 운영난 심각

보면 상황이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불교계의 대표적 복지시설인 소적세마을은 최근 2년간 후원금이 30%가량 감소했다. 후원자들이 후원을 끊거나 후원액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정은 연꽃마을이나 불교자원봉사연합회를 비롯해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및 노숙자 시설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복지시설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불교계 시민단체들에 대한 불자들의 후원은 아예 뒷바닥 수준이다. 재가연대는 물론이고 전불련이나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등 10여개 불교시민운동단체들에 들어오는 한 달 평균 후원금은 모두 합해봐야 500여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사찰이나 단체들이 벌이는 '불우이웃돕기 기금 모금'도 형편은 마찬가지다. 3만여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의 유명사찰인 A사찰은 복지시설을 후원하기 위해 자비기금을 모금하고 있지만 동참자는 한 달 평균 18명에 불과하다. 또 A사찰과 비슷한 규모의 B사찰 역시 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모금을 하고 있지만 보시금은 월 평균 100여만원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조계종 북

목탁소리

2002년 문화인물 '유감'

이 은 자(취재2부 기자)

문화관광부는 2002년도 '이달의 문화인물' 12명을 선정, 발표했다. 조선 후기 학자이자 천주교 순교자 인 정약종,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인 이상재, 서민층의 모습을 향토적 기법으로 표현한 서양화가 박수근·정호승과 시인 조지훈 등이다.

343명의 역사 인물들을 심사한 이번 선정결과를 살펴보면 불교계의 인물은 하나도 없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일부러 불교인을 제외시키기가 했으랴.

하지만 올해만 해도 지난 5월의 문화인물이 조계종의 중흥조인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었다고, 11월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종조인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달로 지정되었다. 또한 2000년 5월의 문화인물은 신라 말의 선승으로 불교음악의 변태를 최초로 도입하고 차를 들여와 차문화 발전에 공헌한 진감국사 해소 스님이었다. 그런데 왜 내년도 문화인물

가운데에는 이렇게 우리 역사와 문화, 사상에 영향을 끼친 불교인이 한명도 포함되지 못한 것일까?

불교역사를 말하지 않고는 우리 역사를 말할 수 없고, 불교를 말하지 않고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말할 수 없다. 아직도 많은 불교문화 유산과 큰 스님들의 가르침이 우리의 정신적 힘이 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해 초부터 사명당기념사업회가 사명당 유정 스님의 문화인물 선정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올해 후보 343명 가운데 사명당 유정 스님이 이번엔 선정된 이보다 어떤 점에서 떨어지는가? 그 이유를 묻고 싶다. 사명당 유정 스님 외에도 우리 문화발전기에 기여한 불교인들은 너무나 많다. 만약 타종교와의 협력성을 고려한 것이라면 그 종교가 이 땅에 뿌리내린 지 얼마인가도 함께 묻고 싶다.

생필침선 제 5의 수행법  
잠 너 제 엄 chamna chehum  
하루면 충분합니다.  
불교의 참나, 주인공, 기독교의 하나님, 이슬람교의 알라, 선도의 상제, 동학의 한울림을 체험하여 일체의 존재와 조화로우 화하여, 진실을 밝히는 세상, 행복을 찾아주는 세상, 다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구현키 위한 길.  
스스로 온전한 지혜와 복덕을 구족한 참나를 체험하여 마음과 몸의 병을 치유하고 삶과 죽음에도 메이지 않는 대자유인이 됩시다. 각자 약사어래불이요, 관음이요, 지장보살의 화현임을 확인합시다.  
수행문의  
대전본원 : 042)533-0569  
서울 강남지원 : 02)543-2849  
신촌지원 : 02)392-5165  
\*영가의 장애 원인을 질병 신기가 있는 분 일이 잘 안되는 분 짧은 시간에 크복이 가능합니다.  
생필침선 제 5의 수행법  
잠 너 제 엄 www.chamna.net

사찰 및 납골당 안내  
● 위 치 : 경남 양산  
● 대 지 : 580평  
● 법 당 : 37평  
● 요 사 : 30평  
● 사무실 : 9평  
● 화장실 : 11평  
● 약사전 : 11평  
● 납골당 : 71평  
● 가 액 : 6억(절충가능)  
● 핸드폰 : 016)307-1158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가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공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증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 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몰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편두통, 신장염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청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